

여성·인권운동가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기리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이희호 여사의 서거 6주기입니다. 12.3 내란부터 윤석열 탄핵, 네 번째 민주정부 탄생까지 지난 몇 개월 격동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희호 여사님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신념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엄혹했던 시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소개와 같이 던져 시대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성운동의 선구자이자 스승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여사님이 걸어오셨던 길이, 그 시대의 업적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이희호 여사님을 비롯한 여성운동의 스승이자 선배들이 피흘려 만들어오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 국가체계를 모조리 짓밟았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도 무참히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훼손되고 망가진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를 회복시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이희호 여사님의 삶과 정신, 가르침을 되새기고 이어받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무너진 평화와 인권의 기준과 가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회호 여사님의 서거 6주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